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섬김”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Why에서 시작하는. . .

지난주에 저는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질문을 제기 합니다.

‘why?’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섬김’에 대한 주제, 그리고 WHB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저에게는 그런 물음에서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동기’가 그랬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 역시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

처음부터 이 단체의 시작은 혼자가 아닌 교회 연합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연합하여 그것도 교단을 초월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만나교회에서 혼자하면 될 텐데 왜 같이 하려고 그 어려운 길을 가냐고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이 일이 만나교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창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WHB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는가?

왜 만나교회를 분당에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셨는가?

존재의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한심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제가 ‘섬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쁨’과 관계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토대위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는 지독한 ‘10대 박해’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 로마 제국의 한 종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380년 2월 27일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기까지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로마 황제 중에 361-363년까지 재위한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 된 이후, 유일하게 기독교를 다시 박해하고 이교를 부흥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이라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361년에 황제로 즉위하고 나서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줄리안이 여기저기 보낸 편지들이 역사적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편지의 여러 군데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의 ‘hospitality’를 본받으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줄리안이 보기에 기독교부흥의 원인을 거기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인 이교도와는 달리,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선대하는가?”

저는 역사적 관점에서 선교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섬김’ 혹은 ‘선대’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변화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죠.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

제가 가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말들 ‘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듯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저는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겠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일을 할 때에는 ‘정말 못해 먹겠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가장 명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World Human Bridge 시작 동기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이야기 한다면 '부르심'이죠.

저에게 이 일을 시작한 동기는 '개인적 삶의 문제'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진지하게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 이 단체를 시작하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control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맡겨진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건강을 잃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애썼던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성취를 위해 노력했고, 그래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던 제가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몸이 아프니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너 얼마나 큰 교회 목회를 하다 왔니?"라고 물으실 것이 아니라,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에 이르러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노스는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로 나온 아들 셋의 후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노스'라는 말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들이 진정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간실존을 깨닫게 되면서 부터입니다.

그렇게 119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 저도 제 실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무엇을 하다 하나님께 가야하는 존재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때 접하게 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피터 싱어가 쓴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해일이 쓸고 지나간 동부 해안에서 있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해변에서 말라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손으로 한 마리씩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다에 던져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이 많은 불가사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 모든 불가사리들을 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던지는 이 불가사리의 삶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찾아온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세계 월드비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스텐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은 단순한 자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우리가 돈을 내 놓았다고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위안을 삼자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To do’에서 ‘To be’로. . .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들이죠.

빌케이트, 오라클 그룹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 것 참 훌륭한 일입니다.

정몽준 회장이, 삼성에서 재단을 만들고 돈을 내놓고, 안철수씨가 돈을 내 놓는 일들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놓은 돈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의 삶과 가치관이 변화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의 고민이 있습니다. 돕는 일이 참 중요하지만 그 속에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으면, 돕는 자의 도덕적 위안과 도움 받는 자의 책임 불감증만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to be”의 문제입니다.

저는 유일한 소망을 봅니다. 돕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의 만족 점을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 속에서 이것은 결코 해결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세계 월드 비전 회장인 리처드 스텐스는 [구명 난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가 아니라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나’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께서 왜 떠나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취하라고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위에서 부터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정의가 가능하겠죠.

“교회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제자의 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두 부분으로 나뉘집니다. 사람들을 모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던 사역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없게 시작하자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높아짐과 낮아짐, 섬기는 것과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출발점이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릭 위렌은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천(worldly)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인 크리스천(world-class)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지만 여전히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교회에서도 늘 자기 맘에 들어야 하고, 늘 자기를 인정해 주어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참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는 얼굴이 보이지만,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생각합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는 일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내가 얼마나 편안하며,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가,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 의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쓰심에 대하여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to do” 가 아니라 “to be”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바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 “예수 바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건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단체를 시작하면서 부러운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형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기업인들을 보면서 말이죠. 많은 돈을 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력하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께서서는 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하는 ‘사단법인’으로 시작한 것이죠. 단체를 시작할 때 자본금이 단 돈 3천 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크리스천 사업가가 거의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사무실을 얻어 충무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단체를 함께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단체의 사명이 끝나면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 얻어 갈 수 있는 이득들이 없습니다.”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죠.

제가 대표를 맡고 있지만, 이 단체를 통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급여도 흔한 법인 카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체를 책임을 지고 실무를 담당하는는 사무총장님 역시 무보수로 섬겨 주시고 있습니다. 법인이사를 맡고 있는 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어떤 모임이나 회의를 할 때도 본부의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곳이죠.

물론 이곳에서 실무를 맡아 일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정당한 보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 단체에서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도 이 단체에서 주인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나교회와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단지 책임을 진다면 분당에 있는 27억짜리 건물을 교회가 매입해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있는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조직도 많이 키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이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 조직과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써야 하니 말이죠. 물론 직원들이 많이 힘들지만, 가능하면 개체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돕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이사들 중에 젊은 기업인들과

함께 꿈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저희 교회에서는 나눔 사역을 많이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실사를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헌금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애쓰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꼭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성으로만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식물을 물위에 던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아님, 바보 같은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휴먼 브리지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유엔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휴먼브리지 이름으로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유엔재단 사무총장과 유엔본부에서 협약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기장 10만장을 보내는 운동입니다. 그 때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헌금으로 10만 불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기장 10만 장은 10만 불이 아니라, 100만 불이었습니다. 내가 상황을 모르고 협약을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났고, 내가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협약이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아니라, 우리가 유엔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이니까, 안 지켜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 .”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10만 불의 모기장 만 보내게 될 것이고, 그 돈 만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데 제가 실수하므로 인해 100만 불을 모으면, 유엔에서 똑 100만 불을 매치하고 결국 200만 불의 돈으로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 . 제 수준이 10만 불 밖에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실수하게 만드신 것은 아닐까?

WHB 이야기 . . .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WHB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단체가 하는 방식이 다른 많은 교회들이 실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회가 NGO의 일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달는 일 중에 하나가, 교회는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전도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

둘째는, 교회가 NGO의 일을 해도 순수하게 섬기는 일 보다는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교회의 이름이 앞으로 드러나니 세상 사람들이, 정부의 지자체가, 기업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을 세상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저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 이름을 버릴 수 없을까요?”

이 일은 돈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는 일, 앞으로 한국교회가 가야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적인 NGO 단체들을 보세요.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페션 등. 교회의 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돈을 내고, 잠시 감동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황당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일을 교인들이 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지난 10년 동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다란 단체가 된 것이 아니라, 가장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한국의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와 교인 그리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하는 NGO가 된 것입니다.

World Human Bridge 새로운 패러다임

- ◆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세상의 자원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 ◆ 하나님일의 주체가 '기관'이 아닌 '교회와 교인'이 되도록 한다.
- ◆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 ◆ 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
- ◆ 정체성 없는 것이 정체성 → 단지 'bridge'가 될 수 있다면. . .
- ◆ 세상의 자원을 활용하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business model과 자립
- ◆ 참여 방법: 1% 나눔, 회원 가입, 회사에서. . .